



국가예산 확보 위한 국회 설득 총력

김 지사, 민주 예산·정책
핵심 인사 잇따라 면담
전북 현안 예산 반영 요청

국회 예산심사 초기부터
현장 설득형 대응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중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포럼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담원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중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



5일 서울 국회를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소영 예결위 간사(사진 왼쪽)를 비롯해 예산 및 정책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정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등을 설명하며, 국가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과 예산 반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화 기반 화창과 관련해서는 조계원 국회의원과 대화에서 △국립모두예술포럼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인프라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대응을 통해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등 파급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지속 추진과 AI 산업 육성, 지역 맞춤형 문화사업의 확대는 전북의 전략적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 박희승 국회의원실과 도·시군 합동 상주 캠프를 구성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새만금, AI, 문화 인프라 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끝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미달 고용부담금 납부

중증 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법정기준 3분의 1에도 못미쳐

민주 이원택 의원, “농협, 사회적 약자 포용해야 할 책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가 의무기준에 미달한 장애인 고용률로 매년 수십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및 국내에서 생산한 중증 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중앙회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년 기준 5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억5,000만원 중 약 69.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협그룹이 사실상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율이 2020년 0%에서 2024년에도 0.3%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1%)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이에 대해 “전산·IT 영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구매액 638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억 원(약 87.5%)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생산물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문구류·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꿈드래 소핑몰’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도, 도내 집중호우 피해 복구 312억 규모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6~7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연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 1만 2,589세대에게 피해 유형에 따라 총 291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별 지원금 내역은 시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연 말까지 교부한다.

기재부와 행안부를 설득해 위로금과 보조금 단가가 상향됐다. 주택 침수 가구 지원금은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농·임·수산물 피해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돼 3,426세대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복구계획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159억원을 확보하며 총 312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24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 추

진된다.

당시 도내에는 평균 137mm의 비가 내렸으며, 군산 296mm, 익산 합하면 2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북부 권에 집중됐다. 군산시는 7일 새벽 0시 57분 시간당 152mm를 기록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10개 시·군에서 농작물 2,369ha, 주택 469동, 소상공인 점포 2,787곳 등 총 3만17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86억 원으로 전곡 9월 피해액의 80%를 차지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만호 기자

가금농장 유입 차단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 발령에 이어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군산 만경강(10월 29일, 야생조류 분변)과 부안 고부천(11월 3일, 포획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AI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11월 5일부터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

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AI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이어,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도내 주요 서식지의 감염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AI의 가금농장 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주변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7th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2025.11.15(토)~11.16(일)

진안로컬푸드진안점 주차장 일대

우리집 김치담그기 사전예약(선착순)

10:30 | 13:00 | 15:00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상시 주문판매

김치오락실 등 체험부스 운영

막걸리·보쌈 등 다양한 먹거리

흥겨운 공연과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우수축제선정

문의 및 접수 | 063.433.6661

주최 | 진안군

주관 | 진안YMCA 후원 | 전북특별자치도